

경제성장 이면에 버려진 사람들

<1> 좌담... 도시빈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사회: 바쁜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산물인 도시빈민계층은 이전까지의 계층적이지 않았고, 즉각적 투쟁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사회의 변화지향 세력으로 팽창적인 단일대오를 형성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빈민계층은 도시빈민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전체 운동선상에서조차 소외와 배척을 당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시빈민들이 민족민주 운동에 얼마나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빈민에 대한 올바른 시각 정립과 도시빈민 운동의 성격, 운동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

이반 6회의 시리즈를 통해 도시빈민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빈민운동의 개념과 성장과정,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빈민운동은 해방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광주대단지폭동'으로 부터 빈민운동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민세력과 결합하게 된 것은 84년 노동투쟁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파악하는데 노동투쟁은 기존의 자연발생적이고 즉각적인 차원을 벗어나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으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당 3동, 상계동 철거 투쟁을 거치며 철거투쟁은 빈민 운동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당동 철거현장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상계동 같은 지역에서 철거투쟁 양상을 보면 구조적으로 철거지역을 지키려는 지역 수호적인 성격을 지니는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철거투쟁에서는 도시 빈민들이 정치해탈할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당동 철거투쟁이나, '서월협'에 가입되었던 여러 철거지역 투쟁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

본적인 도시빈민들의 요구가 돈암동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돈암동 이외의 철거현장에서 철거도시빈민들은 '딱지' 하나를 얻고 쫓겨나든지, 보잘것 없는 합의에 의해 돈 몇 푼 받고 도시를 떠나 수도권주변이나 도시외곽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60~70년대 박정권의 개발독재적인 성격의 철거정책과 80년대 5공화국의 합동개발 성격의 철거정책과는 성격을 달리

흔한 편파적이고 이에 따른 이념 현상으로 인해 도시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발생되어 국내독점자본의 극대 이윤을 가져다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김: 도시빈민을 계층분석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주변적 노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원론적으로는 반프롤레타리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같이 혼합된 그런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성

도시 빈민시리즈를 시작하며 도시빈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3분의 각 부분 활동가를 모시고 좌담을 마련한다

참석자
김단(소설가, 주거연합 간사)
소준섭(전민련 부대변인)
유재의(한양대, 도민보과장)
사회자: 최상호
(본보 기획부장)
기록·정리: 조인성 기자



파행적 도시정책 타파의 주력부대 근거지 중심의 지역운동으로 발전모색

어 넓어 임대주택정책이라는 구조를 내리게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정책을 처음으로 제기한 곳은 사당동입니다. 그

합니다. 90년대 현재에 와서는 대도시에서 더 이상 투기할 땅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도시중심의 합동개발에서 도시외곽이나 수도권주변으로 독자자본과 정권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재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규모의 땅투기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 90년대 이후까지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도시빈민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매우 일관된 것 같습니다. 도시빈민계층의 형성과 남한 변혁운동선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

▲소: 빈민운동은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빈민운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빈민들은 노동자, 농민들과 더불어서 한국사회의 모순에서 산출된 기층민중으로서 노동자, 농민과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제3자의 농민파탄과 국내독점자본의 이해에 따라서 도시빈민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상황에서 농

적으로 계층이라는 명칭을 붙인다면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범주화 될 수 있고, 이러한 빈민들이 다시 노점상, 일용직 노동자, 철거민 등으로 묶여져서 생산적인 조직에서 다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광의의 노동 운동에 귀결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여기서 타 부분

"도시빈민들은 강력하고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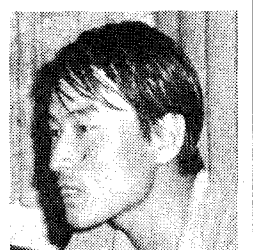
과 연대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부분운동이 각자 특수한 계층적인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민주운동 진영에서 타 계층과의 연대활동은 아직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 학생운동과 지속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밀접하게 연대투

쟁을 전개하게 된 것은 사당동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철거현장에서 도시빈민들과 연대 투쟁하는 과정에서 민중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향후 빈민운동의 조직화와 단결력이 어떻게 강화, 발전될 것인가 하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 도시빈민대중들이 이제까지의 투쟁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 빈민들이 누구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실히

조직화가 어렵다고 말하시는데 실은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노조에 대한 불신임을 한 모습들을 예로 들면, 그것은 취약한 대중운동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당동의 경우 2천여 가구가 2년여 동안 공권력에도 분열되지 않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 사실에서도 증명되듯이, 도시빈민들은 강력하고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급이라

"정부의 반민중적 정책을 폭로해야 합니다"



< 유 재 의 >

인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시빈민대중이 모두 투쟁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대중을 중심으로 많은 대중들이 현 사회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변혁지향세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비조직화된 대중들을 조직화해나가는 선진적 운동가들과 전 빈민 같은 공개적 대중조직, 주거연합 같은 대중조직으로 도시빈민들의 조직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김: 철거투쟁이 끝난 후 참가했던 인자들을 지속적인 운동으로 재조직화해줄 수는 없을 까 하는 고민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거연합입니다.

주거연합의 집행부들과 회원들은 신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의 현상으로 인해 쫓겨 들어온 그 지역 빈민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 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전방을 제 기여해 앞으로는 철거투쟁이 지역운동화 것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연합측에서 도시빈민을 중, 서, 남, 북으로 나누어 지역위원회를 두었고, 부천, 인천 지역에도 지역연합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조직을 통하여 그

했을 때 구성원이 처한 위치와 요구가 동일하면서 오는 계급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의 의식도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화가 어렵다는 말은 도시빈민에 대한 불이해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도시빈민운동의 향후과제와 도시빈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

- <1>좌담...도시빈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 <2>도시빈민 계층의 형성과 성격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 <3>도시빈민 투쟁사
- <4>프로...빈민층의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 <5>빈민운동의 현 단계와 향후 발전전망
- <6>소설

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 그간에 축소되었던 도시빈민운동의 성과들을 정리투쟁속으로 발전시켜내고 그런 방향성 속에서 전망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철거투쟁, 노점상투쟁, 일용노조투쟁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투쟁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부분운동들은 더욱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빈민투쟁들이 반드시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실현하는데 굳건한 토대으로써 작용할 것입니다.

▲김: 과밀화되고 과대화된 서울지역에서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의 도시문제는 이제 도시 속에서 '주거'를 가진 계층, '가치'를 갖지 못한 계층' 등의 계층적인 문제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문제 속에서 도시빈민들은 아주 열악한 도시의 환경과 주거를 그 밑바탕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제로 남아 있다는

것과 앞으로 전개될 한국사회의 성격과 경제의 불안정은 도시빈민운동이 발전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유: 권력과 독점제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시빈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도시빈민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무주택대중들이 조직화되어서 정부의 토지, 주택정책과 빈민중적인 주택정책을 폭로하고 올바른 주거정책과 인간적인 주거조건을 정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장기간에 걸쳐 이해를 공유한 것과 같이 도시빈민운동은 한반도의 인간해방운동의 한 부분으로 아직은 취약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반 시리즈를 통해 도시빈민운동이 전체민중운동성 고양과 민중운동에 얼마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좌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캠퍼스 야간 순찰대장 운 주 완 씨

를 잡고 술을 먹지요. 대중보면 알아야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쉽게 구별이 가거든요. 일단 고등학생이라고 판단되면 오려 순찰하는 사람에 접근을 하려 수가 일주일입니다. "며 보통 혼자 순찰을 돌다보면 오히려 순찰하는 당사자가 더 겁을 집어먹을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유: 어떻게 좀 학교에서 여가 되면 인원을 충원해서 2~3명이조를 이루어 순찰을 돌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법대쪽은 가기 전부터 달력 내어 남다니까요. 그리고 등교금 내고 내가 다니는 학교인데 왜 참견하고 따지고 들때는 정말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며 '외부에서 여자들끼리나 남자가 오기도 합니다.

▲소: 학교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각자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심을 해야지요. 작년엔 교수회관뒤에서 직장인 여성을 폭행하려는걸 발견했지요. 상대가 학생인지는 확인 안됐지만 사고는 뒀나봐요.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며 진리의 상아탑, 지식인의 자람이며 가장 순수해야 할 대학에서 요즘 신원지상을 자주오르내리 기까지 하는 사면에 대해 안타

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映>

학자들은 조금후에 자리를 파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간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의통제가 전혀 안되는 본교의 사정으로 고등학생들의 통제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보통 대운동장이나 노천극장에 자리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소: 흔히 도시빈민들에 대해

한양화학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공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양화학-프라스틱

문화를 처음 창조한 회사

한양화학은 국내 석유화학사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966년부터 PVC, 가스제 및 가성소다를 선보인 이래 LD, HD, L-LDPE, EVA 등 폴리에틸렌 전제품과 골드름, 골드름, 골드렛, 골드렛 및 각종 PVC 파이프 등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양화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회사

한양화학은 이제 Naphtha Cracking Center (NCC)의 건설을 통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기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룩하고 WOODSTOCK, MDI, PMMA 등 자동차, 항공산업부품 및 전자부품 등을 생산, 풍요로운 미래를 책임질 에너지 테크놀로지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화학-미래의 행복을

가꾸는 회사

미래의 행복은 화학에너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한양화학은 첨단 신소재 개발은 물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해외연수 등 파급한 교육투자를 통하여 화학 한국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 생산제품

- PE(LDPE, HDPE, L-LDPE, EVA)
- PVC, Paste Resin, 가스제
- VCM, EDC, 가성소다, 염산, 염소
- 바다제(골드름, 골드름, 골드렛, 골드렛, 골드렛, 골드렛, 골드렛, 골드렛)
- 파이프류(XL-PE 온돌파이프, DSF 파이프, 각종 PVC 파이프)
- 플라스틱 창틀(골드렛, 골드렛)
- 각종 필름 및 시트

■ 국내외 합작회사

- 한양BASF 유래인(주) - 폴리카보네이트 원료인 MDI 생산예정
- 한양소제(주) - 자동차부품소재인 WOODSTOCK 생산
- Union Polymer(주) - PVC Sheet 및 파이프 생산
- 한양화학 타일랜드(주) - 태국 현지 공장에서 연질제품 생산
- ACAN Windows Inc. - 캐나다 현지에서 PVC 창틀 생산

■ 본사 : 서울-중구 장교동 1 (현암빌딩) 729-2700

■ 지점 : 부산 (051) 465-2501 • 광주 (062) 223-0957 • 전주 (063) 46-7784 • 대구 (053) 253-4755 • 대전 (042) 621-0592 • 원주 (0371) 84-8355

■ 영업소 : 마산 (0551) 41-2118 • 순천 (0661) 744-2890 • 강릉 (0391) 43-1707

■ 공장 : 여천 (0662) 82-1941 • 울산제1 (0522) 72-5131 • 부강 (0431) 60-4181 • 진해 (0553) 44-5161 • 울산제2 (0522) 73-2521 • 군산 (0654) 42-3171

한양화학

석유화학공업의 21세기를 선도하는